

# “꿈 다스리면 삶·수행 큰 힘”



◇중국 우림(五明)불학원 부원장 단정자취 스님.

‘꿈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 사람들의 지혜’

단정자취 지음 / 성진용 옮김  
호미 / 8천원



신고 있는 이 책은 ‘꿈을 다스리면 삶과 수행에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인 단정자취(丹增嘉措) 스님(중국 오대산 우림불학원 부원장)은 이 책에서 꿈을 중심으로 티베트 불교의 세계관이 녹아있는 많은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특히 여기에 소개된 티베트 역대 고승들의 꿈 체험담은 삶과 꿈, 그리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잠들고 깨는 것, 죽고 살아나는 것을

질을 높이고, 잠재해 있는 생명의 원동력을 불러 일으키며, 전생과 현생의 부족함을 개선하고, 생명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등 응용 범위가 넓고도 깊다는 것. 꿈을 어떻게 만들어지나, 꿈을 어떻게 다스릴까, 꿈을 통해 전생 알기, 앞일 내다보기, 마음 모아 기도하기 등 꿈의 원리와 응용분야를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작고 얇되,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이 책은 두세 번 읽다 보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꿈과 삶과 죽음을 한자리에 놓고 바라보는 티베트 불교의 지혜가 정신의학자들이 보기에 보기도 놀랄 정도로. 오늘날, 꿈을 연구하는 세계의 과학자들이 앞다투어 티베트 불교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파드라 삼바바 대사의 <티베트 사자의 서>가 그렇듯, 이 책 또한 티베트 불교가 오랫동안 쌓아 온 수행력을 잘 보여주는 오롯한 전통의 산물이다. 저자인 단정자취 스님은 통친 라오장(無垢光) 존자의 화신인 쉐론공뿌(索倫貢布)의 환생자로 알려져 있다. 밀중을 깊이 연구해 젊은 나이(36)에도 설법과 저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활발(活佛)로 추앙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삶·꿈·죽음이 하나임을 알면 생사 윤회 벗고 해탈에 이른다

하나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큰스님들의 통찰력이 곳곳에서 빛난다. 수행을 통해 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밖에서 볼 때는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밝고 텅 비어 아무 분별이 없는 경지에 있다고 한다. 삶과 꿈과 죽음이 하나임을 제대로 알면, 생사 윤회를 끊어버리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진귀한 가르침이다.

저자는 꿈 수련이 여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꿈 수련을 이용해 생활의

“인생이란 그저 깊고 단단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꿈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할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이, 꿈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이나 내면의 동기와 얽혀있음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꿈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 사람들의 지혜>(호미)는 삶과 꿈의 뜻, 꿈 현상의 수수께끼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꿈을 다스려서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고, 사는 동안 겪는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며, 궁극의 경지인 해탈에 이르게 하는 수련방법을

# “우리 선생님은요 친구도, 아با도 돼요”

‘산골마을 작은 학교’

김은주·박경화·이혜영 지음  
소나무 / 8천원



◇소중했던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세상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는 더욱 아련한 그리움의 공동체다.

“산골마을의 모든 꼬마들은 작은 학교에서 친구가 되고 자연을 교과서 삼아 저절로 배운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아빠가 되어 마을의 대소사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기도 한다.”

먼저 푹푹 날리는 황토길 따라 걷던 등교 길, 선생님·친구들과 오순도순 둘러앉아 먹던 도시락, 높은 하늘에 만국기가 휘날리던 가을 운동회, 난로가에 둘러앉아 고구마며 감자를 구워 먹던 교실, 지금은 낡은 흑백 영화처럼 기억되지만 금산의 시골학교, 강원도의 산골학교, 푸른 섬 제주도의 작은 학교에선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산골마을 작은 학교>(소나무)에는 10개의 작은 학교가 실려있다. 그러나 몇몇은 책이 엮여지는 사이 사라져 버렸다. 지난 1999년 한 해 동안 없어진 학교 수가 무려 927개. 그러나 이처럼 작은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골 마을에서, 섬 마을에서 햇살처럼 울려나온 아이들의 웃음

을 잇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채워주던 삶의 여백이 ‘편리함’과 ‘효율성’ 앞에서 무참히 도려내지는 것이다. 또한 우리 유년의 기억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골마을의 작은 학교는 그 마을의 문화유산이며,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존재 이유가 있다.

책을 읽다보면 문득문득 어린 시절로 돌아가, 동심이 된다. 결국에는 고향이 그리고 친구들도 보고 싶어진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바쁜 도심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 책은 월간 환경잡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기자였던 김은주, 박경화, 이혜영씨가 지난 1999년 한 해 동안 찾아다닌 시골 학교의 이야기다. 저자들의 희망처럼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김재경 기자



‘아버지의 바다’

글/사진 김연용  
휴먼 앤 북스 / 9천8백원



## 눈먼 어부가 낚아 올리는 ‘행복’



◇눈먼 어부에게 바다는 ‘파도 소리’일 뿐이다.

경운기를 몰고 아버지를 마중 나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무심코 경운기 뒤쪽을 돌아보았는데,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앉아 계셨다. “아버지 뭐하세요?” “기도해.” “무슨 기도?” “경운기 사고 없이 무사히 데려다 달라고 말이야.”

난 지금까지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 없이 다니는 줄로만 알았다. 이제 보니 순전히 내 작각이었다.

## 부친 손·발 노릇하며 漁場일 카메라에 아름답고 감동적 생활 담은 사진 에세이

아마 추어 사진 작가이자 아마추어 시인인 저자의 이 글 옆에는 흑백 사진이 하나 있다. 밀짚모자를 쓴 채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의 등뒤로 갯벌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 말뚝이 그물이 쳐진 어장도 어렴풋이 보인다. 경운기가 지나온 그 갯벌 위로 아버지의 주름살 같은 바퀴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그 S자 선은 힘든 굽이를 헤쳐온 아버지의 굴곡 같은 삶을 그려놓은 듯도 했다. 그러나 실명한 아버지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 역광으로 찍은 사진 속의 얼굴은 어둠 속을 꿰뚫는 그림자처럼 보인다. 그렇다. 그 그림자 전체가 바로 아버지의 눈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 장의 흑백사진은 이 책의 갈피를 여는 열쇠이자 마지막 장을 덮는 자물쇠인 것이다.

선재도라는 곳이 있다. 인연의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다. 그 섬에는 고기를

보지 않고도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다. 그는 이마에 닿는 햇빛만으로 시간을 정확히 재고, 뺨에 스치는 바람만으로 집과 어장의 방향을 가능하고, 손끝만으로 짚어진 그물을 능숙하게 걷고, 파도소리만으로 고기떼의 이동을 감지한다. 그는 어부이면서 바다도 고기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책의 저자이다. 병으로 실명한 아버지의 눈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 도시의 화려함을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20대의 열기방장한 청년이 왜 도시가 미친 듯 그림자 같았는가. 그러나 그는 아버지 모르게 바다에 나가 짚어진 그물을 손질하고, 아버지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집에서 어장까지 길게 ‘생명줄’을 연결하고, 자꾸 벗어나는 수저가 안타까워 아버지 가까운 쪽으로 반찬을 옮기고, 어릴 때 아버지가 즐겨 즐겨주었던 하모니카를 선물하고, 날마다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몰래 눈물짓는다.

그 아들은 어느 날부터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난 아버지의 삶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눈이다. 그는 눈은 아버지

의 분신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바다를 통해 삶의 파도를 서로 확인하고 생명줄을 통해 맞닿을 다시 연결하고 카메라를 통해 서로의 눈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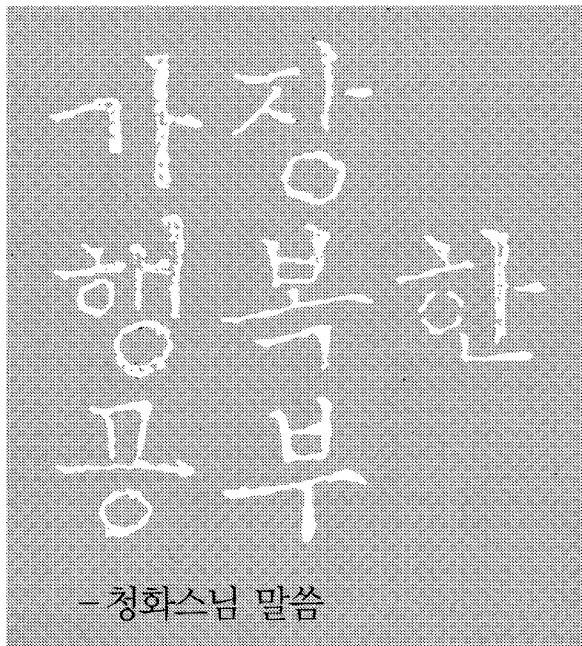
바다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감동적인 ‘사진 에세이집’은 요즘 보기 드문 아름다운 책이다. 아버지를 부모처럼 섬기며 따르는 30리 개 ‘바다’와 ‘소리’와 ‘향기’의 사진과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선재도의 풍광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격조 있는 ‘사진 여행서’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림을 전공했다는 저자 김연용 씨의 간결하면서도 진솔한 시적 에세이가 눈먼 아버지의 슬픈 사연을 정밀한 눈물 없이 볼 수 없도록 만든다. 삶의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라면 누구나 감동 받는 법이다.

‘아버지의 바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산하 / 시인

<아버지의 바다>는 경향신문 ‘매거진X’에 처음 소개되며 슬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단숨에 읽고도 또 읽고픈 ‘노인과 바다’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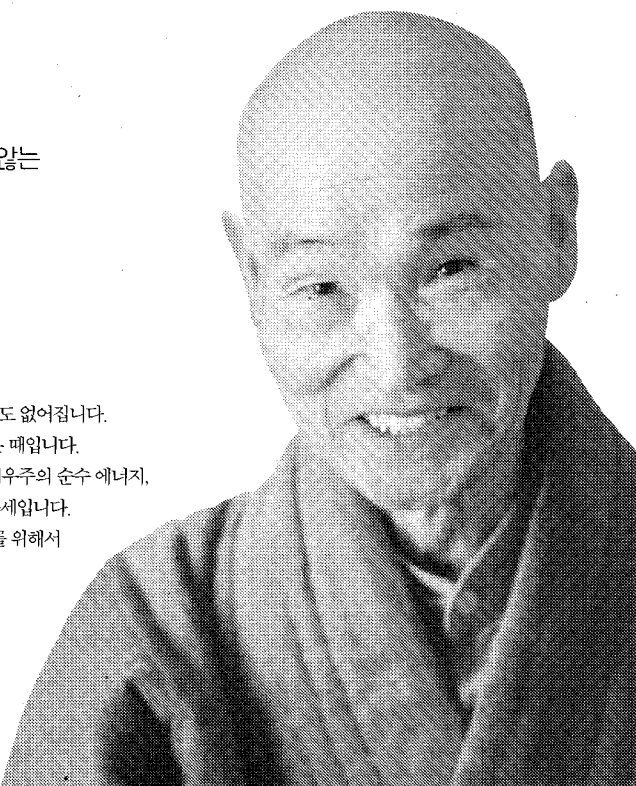
# 우리 시대 큰스님, 청화스님의 맑고 깨끗한 법문



40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動)의 수행, 하루 한 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계행(戒行)의 삶…… 불교계의 큰어는 청화 스님이 전하는 행복한 마음 공부

참선을 할 하린 내가 없고 내가 없고 마인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만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다, 너다, 좋다, 께다. 시비를 다 떠나서 천지우주의 순수 에너지, 순수 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암불도 그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날 좋은 날 모두 좋은 사람’ 중에서(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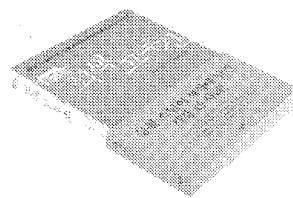
●청화스님 말씀 | 신국판 | 269쪽(컬러 화보 포함) | 값 9,000원



청담스님의 딸, 성철스님의 제자인 묘엄스님 이야기

## 회색 교무신

낡은 결망 하나, 기워 입은 옷 한 벌, 그리고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진 것의 전부였던 시절. 묘엄스님이 추억하는 이야기 속에는 맑은 가난을 즐기던 청빈한 수행자들의 삶이 가득합니다.



●묘엄스님 구술, 윤정광 엮음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